

정치적 행위와 권력의 의미 발현, 연극 <댓글부대>

이유영*

〈차례〉

1. 인터넷의 긍정적인 다원성 상실
2. 정치적 행위와 권력을 전복시킨 인터넷 댓글 조작
 - 2.1. 반정치적 행동으로 파괴된 긍정적인 다원성
 - 2.2. 권력을 박탈시킨 힘과 폭력
3. 그로테스크 미학으로 드러난 <댓글부대>의 지향점
4. 연극 <댓글부대>와 2019년 한국

국문초록

인터넷 공간은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은 새로운 폭력을 생산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다원성은 파괴되고 만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올바른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적 행위는 실현될 수 없다. 현재 한국 정치는 여론몰이와 가짜뉴스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과거보다 오히려 타깃층을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생산된다. 연극 <댓글부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인 국정원·기무사 댓글 조작 사건을 재현한다. 실제 정치적 문제가 된 사건을 재현한다는 점으로 인해 정치적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현재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확보한 공연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극의 정치성이 정치적 행위와는 연관성이 없는, 권력 과도 연관 없는 인물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댓글부대>의 무대 위 인물들의 반정치적이고 반권력적인 모습이 역설적으로 연극 자체의 정치성을 보이는 지점과 이것이 관객들에게 정치적 행위와 권력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권력, 다원성, 가짜뉴스, 〈땃글부대〉, 정치적 행위

1. 인터넷의 긍정적인 다원성 상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카페, 블로그, SNS 등—은 개인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인터넷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성성의 공간이자, 다원성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 커뮤니티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점도 있다. 그것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다양한 담론의 장으로 형성되면서부터 발견된다. 인터넷의 특성상, 공론화되는 것이 공적 영역에 속한 것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과 착종되어 있기¹⁾ 때문이다. 즉 인터넷에서 점차 공론 영역은 사라지고 그 빈 자리를 개인의 사적 영역이 대체하게 되었다.²⁾ 이로 인해 인터넷은 개인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자기 통제나 자기 검열의 공간으로 변하게 될 위험성을 가진다. 이는 결국 개인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공론 영역으로서의 인터넷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긍정적인 다원성³⁾이 사라진 인터넷 공간에 남은 개인들은 고립될 수

1) 이경미, 「연극의 정치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실험을 통한 감각의 분할과 타자의 현시」,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187면.

2)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74면.

3) 이 글에서는 다원성을 긍정적인 성격을 내재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긍정적인 다원성’이라는 말을 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복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닌 다원성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을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땃글부대〉와도 관련 있는 일베 사이트도 다원성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베 회원들이 각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진정한 정치적 행위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성격이 더 강한 다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혹은 사이트 전체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

있다. 개개인의 복수성 대신 획일성이 지배적인 공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구성원들 개개인을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합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관계가 가능할 때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획일화를 지향하는 공간은 이러한 과정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 결과 공론 영역에서 가능한 긍정적인 다원성의 특징은 점차 사라지며, 공론화시켜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인들은 올바른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때 이 문제는 심각해진다. 공론 영역에 있어야 할 정치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착종된 인터넷으로 들어와 정치 본연의 특징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공론 영역에 속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가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오롯이 정치만을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써 권력의 진정한 주체인 대중이 올바른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

올바른 정치적 행위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그 이상의 활동을 말한다. 정치적 행위는 공론 영역에서 직접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나 사이의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시키거나 상호 간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듯 정치적 행위는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공론 영역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것이 지켜지면 그 사회는 획일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다원성을 지양하려는 세력이 자신들의 의향으로 획일화시키고자 각종 여론몰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을 보일 경우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종 용어들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원성은 부정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재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다원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 긍정적인 다원성은 올바른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다원성을 말한다.

여론몰이와 가짜뉴스는 하나의 쌍으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생산·확대·재생산’의 단계를 거친다. 이 둘은 대중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짓으로서 그 속에 진리나 필연성을 갖지 않은 문제들⁴⁾로 구성된다. 이러한 거짓이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는 순간, 인터넷 공간은 진정한 정치적 행위를 위한 공간이 아닌 여론몰이와 조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 고의로 만들어낸 거짓은 거짓을 조장하는 주체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는 점차 격하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이 같은 문제가 크게 대두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국정원·기무사 댓글 조작 사건’이다. 인터넷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이 사건은 더 이상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창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도 각종 SNS와 유튜브 등으로 여론몰이와 가짜뉴스는 생산·확대·재생산되고 있기에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연극 <댓글부대>⁵⁾는 시의성을 가진다.

공연 시작 전, 무대에서 영상자막으로 “본 작품은 2013~2015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문장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관객들에게 직접 노출하면서 연극이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놓이게 만든다. 즉 관객이 연극을 실제 사건과 연관지어 관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곧 연극 자체가 인간 삶의 정치적 영역을 예술의 형식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면서⁶⁾ 허구보다는 사실

4) 한나 아렌트, 김선옥 옮김, 『공화국의 위기』, 한길사, 2018, 37면.

5) 장강명의 동명 소설 『댓글부대』(서울: 은행나무, 2015)를 각색한 연극 <댓글부대>(이은진 각색·연출)는 2017년 ‘권리장전 2017 국가본색’의 참여작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2018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파토리’ 선정작으로 재공연되었으며(대חק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2019년은 ‘제40회 서울연극제’의 선정작으로 다시 공연되었다(동양예술극장 3관에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세 차례의 공연 중, 이 글은 2018년(6월 15일~24일까지 대חק로예술극장 소극장)의 공연과 대본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땃글부대>에 대한 기왕의 평론은 현실의 정치와 관련한 분석이 중심인데,⁷⁾ 이때 언급되는 정치는 다소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앞서 언급한 ‘정치적 행위’를 중심으로 <땃글부대>를 살펴보고, 연극에서 내재된 의미 층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땃글부대>의 인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그들의 반정치적인⁸⁾ 행위가 오히려 관객들에게는 올바른 정치적 행위와 권력의 의미를 발현하는 지점을 재의미화하고자 한다.

2. 정치적 행위와 권력을 전복시킨 인터넷 땃글 조작

2.1. 반정치적 행동으로 파괴된 긍정적인 다원성

그간 한국 정치는 사실상 폭력이 권력을 압도했으며, 권력을 독점하려

6)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8, 277면.

7) 남지수(「예술가의 정치, 예술의 정치: ‘권리장전2017_국가본색’을 돌아보며」)는 <땃글부대>가 허구의 서사를 통해 사실을 환기하기 때문에 현대 비극과 닮았으며, 인간의 저속한 욕망과 천박한 욕망이 권력자의 욕망과 만나 추악한 세계를 재현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이인순(「추의 정치, 추의 미학」)은 <땃글부대>가 추의 정치를 형상화하는 연극의 추의 미학에 관해 분석한다. 연극이 풀어내는 추의 미학이 추의 정치에 관해 관객의 저항성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을 논의하며 탈경제의 방식, 사회적·정치적 참여로서의 예술의 실천방식을 논한다. 김태희(「지금, 여기, 우리를 사유하기 위한 질문들: 〈어떤 접경지역에서는〉 <땃글부대〉 <공주^{푸른}들〉」)는 거짓에 취약한 우리 사회를 재현하는 지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의 감정에 관해 분석한다.

반면, 정안나(「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는 기왕의 평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시 미투 운동의 촉발과 관련하여 <땃글부대>에서 여성의 소비 방식이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지점에 관해 분석한다.

8) 이 글에서 반정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한다. 하나는 정치의 대척점에 있다는 의미로서 다원성, 특히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다원성이 파괴되어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반정치는 정치적인지 않다는 의미도 가진다. 이는 첫 번째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치의 대척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는 완전히 무관한, 즉 비정치 혹은 무정치와도 비슷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의 대척점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정치를 선택했다.

는 자의 선전과 여론몰이가 정치적 약속보다 중요해지면서 진정한 정치적 행위는 불가능했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힘 있는 소수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여론 조작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사가 정치적 약속에서 멀어지게 했으며,⁹⁾ 그 결과 대중은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렇듯 힘과 폭력의 주체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성적 또는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힘과 폭력의 주체는 자신들이 권력자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탈바꿈해왔다. 그들은 권력으로 가장한 강력한 힘과 폭력을 직접 행사했던 1980년대 전후를 지나 2010년대는 보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대중을 통제하려고 한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부터 힘과 폭력의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여론몰이와 가짜뉴스의 형태로 변모했다. 힘과 폭력의 주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정보와 글로서 무차별적으로 생산·확대·재생산하면서 만들어낸 거짓을 다수의 의견인 듯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을 장악한다.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장의 기능을 상실한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아래 ‘과 노출콘적인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¹⁰⁾

연극 <댓글부대>의 댓글조작단 ‘팀 알렘’의 활동도 이와 유사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조종하는 힘과 폭력의 주체들이 원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하는 인물들이다. 무대 중앙에 이들이 작업하는 테이블과 컴퓨터가 길게 놓여 있고, 여기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극이 시작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팀 알렘의 특징이자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여행, 연수, 유학 같은 상품에 가짜 후기를 남긴다는 ‘목

9) 권정우·하승우, 『아렌트의 정치: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한국사회』, 한티재, 2015, 218면 참조.

10) 한병철, 앞의 책, 101면.

소리'의 대사까지 더해져 무대 공간 대부분이 그들의 작업장소가 된다. 이로써 관객들은 그들의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 이후 팀 알렘의 활동은 가짜 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넘어 '청부 사이버 공격', 즉 인터넷 강사들을 저격해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팀 알렘이 여론몰이와 거짓에서 뗄 수 없는 집단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목소리(E)	팀 알렘은 한층 더 은밀한 의뢰도 받아들였다. 청부 사이버 공격, 이른바 '저격'이다. 초기 고객들은 인터넷 강사들이었다.
챗챗캣	(컴퓨터를 하며) “개념과 스킬의 황금비율. 2013 대한민국 토익 넘버원 IC 이승아”
삼 궁	(컴퓨터를 하며) 몸매가 황금비율이다. 현아 뽀빠사귀 후 려치겠는데.
챗챗캣	트위터도 하네. 와, 씨발 뽀퐁 존나 크다.
삼 궁	인강 강사가 몸 팔아 돈 버노, 이걸로 컨셉 잡자. 포샵질 좀 필요하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며) 이 정신병자새끼 아직도 안 나왔냐? (바깥을 향해) 야, 작업 좀 하자. 똥 싸다 죽었냐?
01査10	(나오며) 안 죽었다. (챗챗캣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와씨, 존나 꼴린다…….
삼 궁	야, 이 김치넌 짹가슴이야. (모두 웃는다)
목소리(E)	팀 알렘은 저격 대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뭐든 사소한 트집을 잡으면 그만이었고, 대개 외모를 문제 삼으면 되었다. 대상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308면) ¹¹⁾ (이하 강조: 인용자)

11) 이 글에서 인용하는 <땃글부대> 공연대본은 『공연과이론』 통권 71호(2018.9) '창작과 번역'에 수록된 '2018 극단 바바서커스 공연대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공연대본을 인용할 때 <땃글부대> 공연대본이 수록된 『공연과이론』의 면수를 기재한다.(이하 본문

팀 알랩은 여성 강사의 신체를 저격 콘셉트로 잡아, 외모 비하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들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된 여성 강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활동 중단 후 성형수술을 감행한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저격의 대상자와는 달리, 저격한 공격의 주체였던 팀 알랩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한 인간의 인권보다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단지 의뢰를 받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이후 팀 알랩의 댓글 조작은 점차 조직성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댓글부대. 2세대”(310명)가 부상한다. 댓글부대 2세대로서 그들은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며 여론몰이를 한다. 여기서 팀 알랩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진정한 행위의 의미를 실현하는 인물군이 아니다. 특히 팀 알랩의 댓글 조작 행동은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반정치적인 인물군임을 알 수 있다.

언급했듯이, 정치적 행위는 복수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통해 타인, 즉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수의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력이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소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이들의 권력은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댓글부대>의 전체 서사의 핵심 인물인 팀 알랩, 그들의 리더인 삼궁은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정치적 행위와는 떨어진 인물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물들도 아니다. 그들의 활동은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순

응적인 행동으로 보는 더 적절하다.

정치적 행위의 주체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있다. 또한, 이것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이와 달리, 행동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은 자발성과 창조성보다는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규칙들에 순응하게 된다.¹²⁾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면서 자발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순응적인 행동¹³⁾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응적인 행동은 정치적 행위와는 다르다. <땃글부대>의 팀 알렘의 인물들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힘에 굴복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순응적 행동을 하는’ 인물, 즉 순응주의자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찾타캇	저희랑 제일 자주 본 사람은 자기가 이철수라고 했는데, 그게 본명일 리는 없구. 회장, 본부장,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진짜지 가짜지 모르지만.
임소진	이철수도 정보기관 사람이었어요?
찾타캇	정보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 구조본에서 일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집사나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철수가 종종 ‘이게 회장님 지시사항이다.’ ‘어르신 뜻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임소진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쥬?
찾타캇	우리 중에는 삼궁이만 봤어요. 어쨌든 엄청난 흑막이라는 느낌이 없쥬. 막 말싸움하다가도 회장 얘기가 나오면 팀장도 본부장도 한수 접더라구요. (3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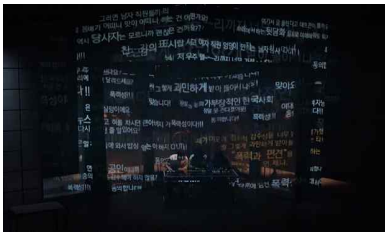
찾타캇과 임소진의 대화에서, 삼궁은 합포회의 일원인 이철수로부터

12) 이진우,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휴머니스트, 2019, 100면.

1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113면.

회장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팀 알렘은 자발적으로 댓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순응할 뿐이다. 따라서 팀 알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어르신(회장)’의 말과 의견을 자극적으로 가공해서 전달하고 있는 행동자에 불과하다. 특히 그들은 사적 이익, 즉 돈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데, 삼궁이 이철수를 향해 의구심을 가지는 찻타깃에게 “돈만 받으면 되지.”(319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다. 여기서 그들은 경제의 논리—구체적으로는 돈의 논리—에 순응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팀 알렘은 회장의 견해를 대변하는 편향된 의견을 다수의 말인 것처럼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다. 이러면서 인터넷 공간은 소수의 의견이 거짓으로 조장되어 다수의 의견인 듯 보인다.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 무대는 영상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된 댓글을 보여준다.



[사진1-2]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작성되는 댓글을 무대 중앙 영상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면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사진1]과 [사진2]를 보면, <댓글무대>는 활자로 존재하는 댓글을 무대 위 영상으로 구현해 실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댓글을 재현한다. 이때 영상으로 보이는 글자의 크기도 제각각이며, 여러 목소리가 중첩되어 댓글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무대에서 보이고 들리는 댓글을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없다. 이는 실제 단시간에 많은 댓글이

생산되는 것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분명한 언어로 양자가 소통하지 못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잘 표현한 미장센이다. 즉 이 장면은 언어를 매개로 다수의 인간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의 본질적인 특징¹⁴⁾이 파괴된 것을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철수 자네들은 인터넷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삼 공 글썄요, 인터넷에 목적이 있나요? 그냥…… 있는 거 같은
 데요.
이철수 난 역사를 바꿀 거리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이
찾타캇 이미 바꾸지 않았나요?
이철수 바꿨지. 근데 좋은 쪽으로는 아니에요. 인터넷이 처음 등
 장했을 때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요. 지위고하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고 토론으로 대안 찾아낼
 길이 열렸구나! 인터넷이 사회 부조리 고발하고 권위 타
 파해서 민주화를 이끌 것이다! 그런가요? 그냥 거대 언론
 이 하던 나쁜 짓을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거 같은 아마추
 어들이 소자본으로 하게 됐지요. 거대 언론이 잠잠게 기
 억에 겹주면서 광고 따냈다면, 인터넷 신문들은 대놓고
 뺑을 뜯어요. 블로거들, 동네 식당 상대로 협찬 요구하고
 말이에요. 이것도 민주화라면 민주화지. 협박, 공갈, 갈취
 의 민주화. 누구나 더럽고 야비한 짓을 할 수 있게 된 민
 주화. (318면)

이철수가 말한 인터넷 공간의 혁명은 소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나 가능했던 주권자의 목소리가 직접 표현되고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된 인터넷은 공

14) 장명학, 「한나 아렌트의 공동권력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1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54면.

정적인 다원성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에도 틈새가 존재하기에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들은 이곳을 공략하려고 한다. 이철수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철수 (01查10이 거슬리는 듯)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뭉쳐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애착 가는 커뮤니티 두세 개 정해놓고 수시로 확인을 하죠. 애엄마들이 대표적이예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려니 힘들어 죽겠어요.’ ‘지하철에서 늙은이들이 자리 비키라고 행패 부려요.’ ‘이놈의 한국 사회 정말 짜증나요!!!’ ‘폭풍 공감이라는 댓글이 우르르 달려요. 왜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개들, 기득권 탓을 해요. 정부, 재벌, 언론이 다 기득권과 결탁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댓글 쓰죠? 은근히 따돌림 당해요.**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인터넷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 **확증 편향.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들엔 심의도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8면)

이철수의 말처럼, 인터넷의 공간이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아니라 획일화, 동질화의 공간이 되기에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과거보다 그 강도가 강해졌다. 대다수는 자신이 속한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보다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들이 보편성이나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차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린다. 이로써 인터넷 공간은 공적 영역에서 공론화시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개인의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는 사적 영역의 특징만 남는다.¹⁵⁾

인터넷 커뮤니티는 실명 대신 익명을 사용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는, 원칙상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모습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은 실재하는 자신이 아닌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을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없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은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성보다 확증편향적인 성향과 개인의 욕망만 존재하고 이성적 사고가 사라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진3~4] 땃글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면 쓴 사람들이 무대와 영상으로 보이는 장면 (출처: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네이버 포스트 /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땃글부대> 역시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특성, 즉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사진3]처럼 그로테스크한 미학으로 표현했다. 여성들이 얼굴에 가면을 써 명확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노출하지 않은 채 땃글을 다는 동작을 하면서 구현한다. 그리고 [사진4]에서처럼 무대 중앙에 영상으로 가면 쓴 여성들의 얼굴들을 더 보여줌으로써 실제 인터넷 땃글이 그 어떤 제약성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점을 재현한다. <땃글부대>는 이 모든 것을 무대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인터넷의 부정적인 기능과 여론몰이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여론몰이나 가짜뉴스는 결코 올바른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인

터넷이 여론몰이의 장이 되면서 정치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배후에는 권력으로 포장된 힘과 폭력의 주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과 폭력으로 진정한 권력의 주체들인 대중의 권력을 박탈시키고 순응주의자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론몰이나 가짜뉴스는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2.2. 권력을 박탈한 힘과 폭력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말하면, 특정인이 권력자로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제에서는 권력자라고 불리는 소수는 다수의 권력 주체들—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권력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권력의 반대인 폭력이나 힘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소유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권력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며 공론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권력의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¹⁶⁾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모인 화합의 장이 권력이다.¹⁷⁾ 권력은 억압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진정한 권력의 주체는 소수가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모두다.

이렇게 보면, <댓글부대>의 등장인물 중에는 진정한 권력의 주체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힘에 굴복하는 자와 힘의 강압성을 행사하는 자만 있을 뿐이다. <댓글부대>는 힘에 따른 위계관계를 인물들의 태도—제스처와 목소리 등—로 드러난다.

[사진]은 이철수와 팀 알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모두가

16) 한나 아렌트, 앞의 책, 291~292면 참조.

17) 이진우, 앞의 책, 171면.

18) 한병철, 김남시 옮김,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7, 24면.



[사진5] 이철수와 팀 알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하지만 이철수는 회장 앞에서는 [사진5]과는 다른 자세를 취한다. 그의 목소리나 제스처에서도 회장에 순응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삼궁은 이철수 앞에서와는 달리 회장 앞에서 완전히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힘

동등한 권력의 주체들이지만 힘, 즉 경제력의 차이로 누군가는 굴복하고 누군가는 군림한다. 팀 알렘이 무릎을 꿇고 이철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 사회에 팽배한 힘의 유무가 인간을 어떤 위치에 놓이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사진6] 최장과 이철수, 그리고 삼궁의 모습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의 정도가 힘없는 자들에게 더 강압적이고 폭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삼궁은 회장이 자신에서 폭력—회장이 삼궁에서 따귀를 반박해서 때리는 모습—을 행사해도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데, 이 또한 힘이 가진 폭력성, 강압성을 잘 드러낸다.

회장 앞에 선 이철수와 삼궁의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회장에게는 강압성과 억압성만 있다. <땃글부대>의 극 중 인물 중 최고 권력자로 보인 회장은 결국 회장은 권력이 아닌 힘을 가진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한다. 회장의 힘은 권력의 속성과 달리,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억압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획일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대중은 힘의 논리를 우선시 하는 회장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주체들이 자신의 권력을 받

휘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본인의 자리를 유지해준 힘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 장 (전략) 꼬마야, 너 그거 아니? 경제가 사회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다.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결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품게 되면, 주변이 다 잿더미고 쓰레기산이어도 상관 없어.** 집단의 힘, 군중의 마음! 인간은 강해. (중략) 뭘 해도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 **광우병 시위 때 애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 보니까 겁이 벌컥 나더라고, 이대로 뛴다간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이대로 뛴다간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나서게 된 거야.** 개중에 유모차 끌고 나왔다는 녀들 가관이더구만 내가 널 갑자기 오란 것도 그런 세상모르고 날뛰는 녀들 제대로 엇 먹었다고 해서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325~326면)

회장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정한 행동도 상관없으며, 낙관주의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쪽이다. 그래서 그는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민주화 움직임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자기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움직임은 소수로 집결된 힘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서려고 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인터넷 공간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민주화 움직임을 미리 방지하고 차단하고자 한다. 그래서 새로운 타깃을 설정해 움직이려고 한다.

회 장 (양주를 따라주며) 인간은 말이야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아. 조용필 좋아하던 사람이 늙어서 이미자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야. 조용필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필과 같이
늘어가는 거야. 풋볼 들고 나섰던 애들도 바뀌지 않아.
1985년부터 95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 특히 계집애들. 난
그 애들은 아주 버렸다고 생각해. (중략) 한동안 그 애들
이 인터넷을 쥐고 흔들겠지…… **우린 그 다음 세대를 공
략해야 해. 아직까지 뇌가 굳어지지 않은 애들, 개들의 정
신이나마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
략)** (326면)

회장의 타깃층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 세대를 선택한 것
은 판단의 능력, 더 자세히는 정치적 판단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치적
사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하지
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시키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 사유를 하고 판단하기에는 아
직 어린 세대를 공략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기보다 우매
한 군중을 성장시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합포회와 이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팀 알랩은 인터넷만이 아니라 언론
까지도 공론 영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이는 공익제보처
럼 보였던 찻타캣과 임소진의 인터뷰가 거짓 제보였다는 점에서 분명하
게 드러난다. 찻타캣의 거짓 인터뷰가 기사로 발표되면서 거짓이 공론 영
역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수의 사람은 공
론 영역을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불신 조장은 대중이 정치에 대한 회의
를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은 정치에 무관
심한 군중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상태로 파편화된 대중

19) 장원석,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근본악의 문제」,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한국
평화연구학회, 2014, 41면.

들은 공론 영역으로 집결하기 어렵고, 진정한 자신의 발언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정치적 행위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게 되며,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수의 힘과 그들이 자행하는 폭력이다.

<땃글부대>에서도 합포회의 힘과 폭력은 건재하게 살아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임소진의 말은 실현되지 못한다. 즉 거짓과 힘이 지배한 세상에서 그녀의 말은 파편화되어 흩어질 뿐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찻타캣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중국으로 떠나는 것 말고 없다는 점에서도 폭력과 힘이 말을 차단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실을 알고 있는 그가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의 강압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찻타캣이 극의 마지막에 이철수의 지시로 배에서 살해당하는 것은 그 어떤 말과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힘과 폭력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상실시킨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결국 폭력과 힘이다.²⁰⁾ 이로 인해 <땃글부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권력의 탈을 쓴 힘과 폭력으로서 오히려 권력의 대척점에 자리한다.

이처럼 <땃글부대>는 소수의 땃글 조작으로 인한 여론몰이와 그 영향력과 인터넷 공간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재현한다. 또한, 팀 알렙과 이철수, 회장 등 등장 인물들이 모두 반정치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자 힘과 폭력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반권력²¹⁾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정치적 공간이 상실되었

20) 한나 아렌트, 앞의 책, 96면.

21) 이 글에서 언급하는 '반권력'은 힘과 폭력에 상응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언급했듯이, 권력은 특정한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물론 소수도 가능하긴 하다)의 사람 사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론 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원성이 인정되는 것이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권력은 흔히 일인 권력자로 집중되는 힘과 그 힘이 내재한 폭력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달리 말하면, 권력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힘, 힘이 가진 폭력성을 권력의 대척점으로 보고 반권력으로 사용했다. 반정치와 유사하게, 반권력도 비권력 혹은 무권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힘과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것이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권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음을 말한다.

3. 그로테스크 미학으로 드러난 연극 <땃글부대>의 지향점

연극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서사를 구현하면서 무대 위 인물들 사이, 그들과 관객들 사이에 교류의 장이 형성하기 때문에 정치성을 가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관객과의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관객이 연극을 관람하는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²²⁾이기 때문이다. 즉 연극은 관객의 마지막 분석으로 의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극을 생산하는 주체는 관객²³⁾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극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객에게 다가가는지 등의 수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관객이 어느 시기에 연극을 관람하는지에 따라 연극의 새로운 상징 기호들을 찾아 재구성할 수 있다. <땃글부대>도 2014년 전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현 시점에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 연극을 재의미화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땃글부대>는 이를 무대 미학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땃글부대>의 특이점은 팀 알랩이 땃글을 통해 여론몰이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중요 사건은 ‘보여주기 식’으로 나열된다는 점이다. 이는 무대에서 임소진과 찻타캣이 인터뷰하는 장소는 고정된 상태에서 무대 중앙이 찻타캣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장소들로 변하기 때문이다.

찻타캣과 임소진의 인터뷰는 무대 상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무대 중앙이나 하수와는 단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무대 상수에서 두 사

22) 베르톨트 브레히트, 송운엽 외 옮김, 『브레히트의 연극이론』, 연극과인간, 2005, 108면.

23) 안느 위베르스트펠트, 신현숙·유효숙 옮김, 『관객의 학교』, 아카넷, 2013, 433면.



[사진기] 임소진과 찻탓캇이 무대 상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람이 인터뷰하는 공간은 다른 무대 공간과는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이 공간의 성격이 극 전반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나열되어 관객들에게 보인다. 이때 찻탓캇은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말하는 사건을 극중극 형식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관객들은 찻탓캇이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통해 극적 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극에서 제시되는 여러 사건과 연관된 정보에 집중한다. 또한, 극에서 보이는 사건들이 동시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지하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는 관객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재인지하면서 성찰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관객들이 극에서 실제 사건에 염두에 두고 변용한 사실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연극 <땃글부대>는 과거의 사건만을 재현하고 있지 않다. 이 지점이 현시점에서 <땃글부대>를 재의미화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땃글부대>가 현재진행형인 사건을 암시하는 미장센을 극의 말미에 추가하면서 일련의 과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던 것에 벗어나 직접 발화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 원작 소설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2014년도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맥락은 빠져 있었죠. 각색 미팅을 가졌던 2018년 4월 세월호가 막 인양되고 있던 때였고요. 그런 만큼 어떻게 2014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드라마투르기 과정의 가장 큰 주안점이었습니다. (중략) 원작이 2014년에 갇혀 있는 만큼 각색 과정에서 어떻게든 우리 시대로 끌어 오고 싶었던 거죠.²⁴⁾

<땃글부대>의 드라마투르그는 실제 2014년 세월호를 염두에 두고 각 색 미팅을 가졌음을 밝혔다. 원작 소설은 2015년에 발표된 만큼 소설에서 언급하는 사건들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연극은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구현되었기 때문에 소설에 비해 동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 시점에서 소설의 서사를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추가할 수 있다. 연극 <땃글부대>의 경우, 연출과 드라마투르그는 소설에서 빠져 있는 세월호 사건을 추가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가된 장면이 바로 찻타캇의 시체가 담긴 포맷자루가 인양되는 것이다.

국가 재난인 세월호 사건은 대다수에게 트라우마 기억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트라우마와 연관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특정한 형태로서 기억을 유지하지 않는다. 대개 일차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한 효과나 자취를 통해서 재구성하여 기억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차기억이다.²⁵⁾ 따라서 우리에게 세월호는 국가적 트라우마의 사건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기호는 이차기억으로 그 사건을 재구성하여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찻타캇의 시체는 그 인물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연관하기보다는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를 보이며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²⁶⁾

24) 백승무(사회), 고수진 외, 「〈땃글부대〉 토론」, 『공연과이론』 통권71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9, 23면.

25) 도미니크 라카프라, 김택균 옮김, 「역사와 기억: 홀로코스트의 그늘에서」, 옥영수 엮음, 『치유의 역사학으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84-85면 참조.

26) 2018년 <땃글부대> 공연을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에서 7월 월레비평 대상작으로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서 연극평론가 배선애는 찻타캇의 시체가 올라오는 장면이 연극의 절정으로 보는데, 여기서 ‘결국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다’라는 제작팀의 정치적 지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감추어지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음을 말했다. 백승무(사회), 고수진 외, 앞의 글, 31면 내용 참조.

이철수 아, 그런데 그 글 잘 쓰던 친구한테서는 연락 없었어?

삼 궁 네, 아직이요.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잠수타고 있기로
 해서요. 그 친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은 진짜
 무거운 녀석이에요.

이철수 (고개를 끄덕인다)

삼 궁 여하튼 요새 진보 성향 사이트들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
 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지적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회원들이 서로 댓글부대로 공격한답니다.

이철수 그 얘기는 술 마시면서 듣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술맛
 나는 얘기잖아?

본부장 좋습니다.

이철수 (전화를 걸어서) 애들 다시 들어오라고 해요. (소리치며)
 이제부터 진짜 쇼타임이다!

여자들이 들어온다. 괴물같이 일그러진 얼굴들.
돈다발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가운데 환호와 웃음소리, 신음소리가 뒤섞
이며 격렬한 춤사위가 벌어진다.
그들 뒤로, **물이 똑똑 흐르는 포뎃자루**(찾땃갓의 시체가 담긴)가 **바다에서**
건져진다. (342~343면)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포뎃자루가 무대 위로 떠오르기 전 이철수는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궁에게 찾땃갓의 연락을 물어보면서 재차 그의 죽음을 확인한다. 그 이후 이어지는 삼궁과 합포회의 환락파티, 춤추는 그들의 모습 뒤로 서서히 포뎃자루가 무대로 올라오는 미장센은 그로테스크 미학을 만들며 연극 전체에 가장 강렬한 장면 효과를 준다.

[사진]처럼 붉은 조명 아래에서 일그러진 얼굴 형상의 가면을 쓰고 돈다발을 뿌리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로테스크함을 읽을



[사진8] 환락파티를 즐기는 합포회와 삼궁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사진9] 파티를 즐기는 이들 뒤로 떠오른 포
땃자루 (출처: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뒤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포땃자루가 떠오르고, [사진9]처럼 포땃자루에 조명이 집중된다. 파티와 시체가 담긴 포땃자루가 만들어내는 그로테스크한 미장센은 강렬하다. 두 장면은 마치 불협화음의 조화 같은 무대 미학을 보여준다. 이 같은 그로테스크 미학은 무대 위 인물들의 움직임과 포땃자루 오브제, 음향과 조명의 사용으로 멜랑콜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해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최정점에 달한다.

[사진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지막 장면은 흩어진 돈다발 위로 공중에 매달린 포땃자루가 붉은 조명 아래에서 물을 떨어뜨리며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연극 <땃글부대>의 강력한 메시지는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현재진행형의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사진10] 무대 중앙에 찻탕갓의 시체가 담긴
포땃자루만 마지막 장면 (출처: 아크로
대학로예술극장 네이버 포스트)

행위의 주체인 개개인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진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건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수가 찻탕갓을 죽임으로써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극의 마지막에 결국 떠오른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포땃자루처럼, <땃글부대>는 감춰

진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세월호 인양과 연관해 전달한다. 따라서 <댓글부대>가 마지막 장면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던 것은 대중이 여론몰이나 조작으로 진정한 권력의 주체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했던 과거를 인지시키려고 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관객들이 많은 사건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보면서 진정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진실은 떠오르게 된다는 점과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미장센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상태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추후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권력의 주체로서 정치적 행위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4. 연극 <댓글부대>와 2019년 한국

2013~2015년 국정원·기무사 댓글 조작 사건은 실로 큰 충격이었다.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 사건, JTBC 태블릿 PC 사건 등은 그간 권력이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힘과 폭력의 실체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나라 자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들은 파편화된 대중으로서만 존재했던 개인들이 잇고 있었던, 혹은 잃었던 정치적 행위를 인식하고 실천하게 만든 중대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문제적 사건으로 대수가 정치적 행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7년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한 촛불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공론 영역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자 했다. 단순히 주권자로서 투표의 의무만이 아니라 마치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처럼 직접 대면하고 의사소통하는 공론 영역을 부활시키려고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촛불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

었는데, 이는 정치적 행위만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가 개개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 당시 촛불 혁명은 참가한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를 했던 것이며, 그 행위의 주체가 바로 진정한 권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²⁷⁾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 현재, 연극 <땃글부대>에서 어떤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땃글부대>는 올바른 정치적 행위와 권력에서 벗어난 등장인물들을 통해 연극 자체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정치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관객에게도 이를 인지시키고자 했다. <땃글부대>는 무대 위 재현된 현실과 실제 현실의 정치적 문제의 경계를 전복시켜 관객들이 현실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재의미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통해 연극의 정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극은 원작 소설과 달리 암시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면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줌으로써, 연극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관객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즉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떠오른다는 노랫말처럼, 현시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세월호 사건을 무대로 소환하여 관객들에게 정치적 행위와 권력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땃글부대>는 허구의 연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과 허구의 경계선상에서 연극의 수용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실현해야 할 문제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땃글부대>는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 연극이자 목적의식이 뚜렷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지금,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다양한 공론 영역이 생성되고 사멸된다.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공론 영역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촛불 혁명의 장이었던 광화문은 지금은 다른 성격의 공론 영역이

27) 이진우, 앞의 책, 172면.

되었고, 새로운 공론 영역의 공간에서 촛불이 등장했다. 이렇게 다양한 공론화의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행위는 발현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 등은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고, 타깃층도 연령대별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과거보다 공론 영역의 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댓글부대>는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와 여론몰이의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진정한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성을 가진 연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 조작, 진실이 가려진 상황에서 <댓글부대>가 주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땃글부대」 공연대본, 『공연과이론』 통권71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9.

2. 단행본

권정우·하승우, 『아렌트의 정치: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한국사회』, 한티재, 2015.

베르톨트 브레히트, 송윤엽 외 옮김, 『브레히트의 연극이론』, 연극과인간, 2005.
도미니크 라카프라, 육영수 역음, 『치유의 역사학으로: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안 위베르스펠트, 신현숙·유효숙 옮김, 『관객의 학교』, 아카넷, 2013.

이진우,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휴머니스트, 2019.

한나 아렌트, 김선옥 옮김, 『공화국의 위기』, 한길사, 2018.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8.

한병철, 김남시 옮김,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7.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9.

3. 논문 및 평론

김태희, 「지금, 여기, 우리를 사유하기 위한 질문들: <어떤 접경지역에서는> <땃글부대> <공주孔宙들>」, 『연극평론』 통권94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9.9.

남지수, 「예술가의 정치, 예술의 정치: ‘권리장전2017_국가본색’을 돌아보며」, 『공연과이론』 통권69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3.

백승무(사회), 고수진 외, 「<땃글부대> 토론」, 『공연과이론』 통권71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9.

이경미, 「연극의 정치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실험을 통한 감각의 분할과 타자의 현시」,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이인순, 「추의 정치, 추의 미학」, 『공연과이론』 통권71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9.

장명학, 「한나 아렌트의 공동권력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1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장원석,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근본악의 문제」,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정안나, 「이것은 ‘지금 여기’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연과이론』 통권 71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8.9.

4. 사진 자료

극단 바바서커스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bacircus/221464354250>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16913&memberNo=18719577&searchKeyword=%EA%B7%B9%EB%8B%A8%20%EB%B0%94%EB%B0%94%EC%84%9C%EC%BB%A4%EC%8A%A4&searchRank=1>

Abstract

Revelation of the Meaning of Political Action and Authority from the drama *Daetgeulbudae*

Lee Yuyoung

The Internet has created a space for people to express their thoughts freely. However,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also produces an adverse effect of creating a new type of violence. The political community now creates “Fake News” and uses the Internet as a political platform to manipulate a situation to its advantage. By doing this, the positive plurality of the Internet space is destroyed. Furthermore, as there is no opportunity to freely express one’s own opinions, strictly speaking, it becomes impossible to take political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s of fake news. The current political scenario in Korea reveals a series of fake news to arouse public sentiment. Compared to the past, the target group has expanded and fake news is recklessly created. The drama *Comment Warriors* reenacts the comment manipulation incidents inv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The drama can be connected to a political situation as it reenacts an actual event depicting a political issue and secures timeliness as it is linked to a problem that persists to this day. However, the interesting aspect of this drama lies in how the political views are shown paradoxically through characters without links to political actions or authority. Therefore, the paper identifies how the anti-political actions and the anti-authoritative aspects of the characters of *Daetgeulbudae* reveal the political views of the drama and how this allow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meanings of political actions and authority.

Key words: authority, plurality, fake news, *Daetgeulbudae*, political action

접 수 일: 2019년 11월 11일

심사기간: 2019년 11월 22일~2019년 12월 17일

게재결정: 2019년 12월 18일